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 외 16명

나. 의안번호 : 제 465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3. 05

라. 회부일자 : 2019. 3. 12

## 2. 제안이유

2014년 세월호 참사, 2016년과 2017년의 경주·포항 등 동해안 지역 지진, 2018년 용산구 상가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처능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.

시민안전체험관은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해 시민의 재난 및 위기 대처능력을 증진할 수 있으나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은 광나루(광진구) 및 보라매(동작구)의 2개소에 불과함. 특히 건립 추진 중인 시민안전체험관 또한 동북권(방학동)에 소재할 예정으로,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임.

따라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시민안전체험관이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).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,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1)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안전체험관이 현재 2개소에 불과하여 원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, 이용시민들이 근거리 지역 주민들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,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안전체험관을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별 조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■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

-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이 가상재난의 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올바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의식 및 재난대처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‘광나루안전체험관’과 ‘보라매안전체험관’을 운영 중에 있음.
- ‘광나루안전체험관’은 광진구 능동로에 2003.3.6 건립되어 현재 상시근무자 29명과 연간운영비 12억 원(2019년도 기준)이 투입되면서 일평균 530명의 안전체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,

---

1) 제5조(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)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, 시·도지사는 소방체험관(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‘보라매안전체험관’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2010.5.25 건립되어 상시근무자 30명과 연간운영비 2억원(2019년도 기준)이 투입되어 일평균 480명의 안전체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. ([표] 참조)

[표] 시민안전체험관 주요 현황

구 분	광나루안전체험관	보라매안전체험관
개관일	2003. 3. 6.	2010. 5. 25.
위 치	광진구 능동로 238 (어린이대공원 옆)	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(보라매공원 내)
시설규모	3/1층, 연면적 5,444.5㎡, 대지 5,041㎡	3/1층, 연면적 8,020㎡, 대지 4,753㎡
시설건립 총 비용	205억 4,900만원	414억 5,200만원
연간운영비 (2019년)	12억원	2억원
이용대상	어린이 층 (6세이상)	청소년 이상 (14세 이상)
상 시 근무자수	[총 29명] ▷ 운영분야 : 13명(소방 7, 용역 6) ▷ 청사관리 : 8명(공무7, 촉탁1) ▷ 사회복지 : 8명(안전관리 등)	[총 30명] ▷ 운영분야 : 15명(소방 15) ▷ 청사관리 : 9명(공무 6, 촉탁 3) ▷ 사회복지 : 6명(안전관리 등)
체험코스별 소요시간	▷ 재난체험 : 2시간 ▷ 전문체험 : 1~3시간 (※ 응급처치실습) ▷ 교통체험 : 1시간 ▷ 자유관람 : 시간제한 없음 (※ 새싹어린이안전체험, 나도소방관 등)	▷ 재난체험 : 2시간 ▷ 전문체험 : 1~3시간 (※ 소방시설실습, 응급처치실습) ▷ 어린이 : 1시간 ▷ 자유관람 : 시간제한 없음 (※ 소방역사박물관, 어린이안전체험장)
체험관 이용방법	사전 예약(인터넷 또는 전화) + 자유관람	사전 예약(인터넷 또는 전화) + 자유관람

- 더욱이 ‘세월호사고’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족단위 및 노인계층 체험객,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 등 전계층·전연령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-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접근성에 따른 지역편차 등을 고려하여 ‘(가칭)동북권 안전체험관(도봉구)2’과 ‘(가칭)서북권 안전체험관(은평구)3’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각각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와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.([그림] 참조)



[그림]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위치도

2)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9호, 동북권사업단-7183,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계획, 2018.08.16  
 3) ‘서북권 안전체험관(은평구)’은 안전총괄본부에서 추진(‘18.12~’19.5(6개월간)) 중인 ‘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’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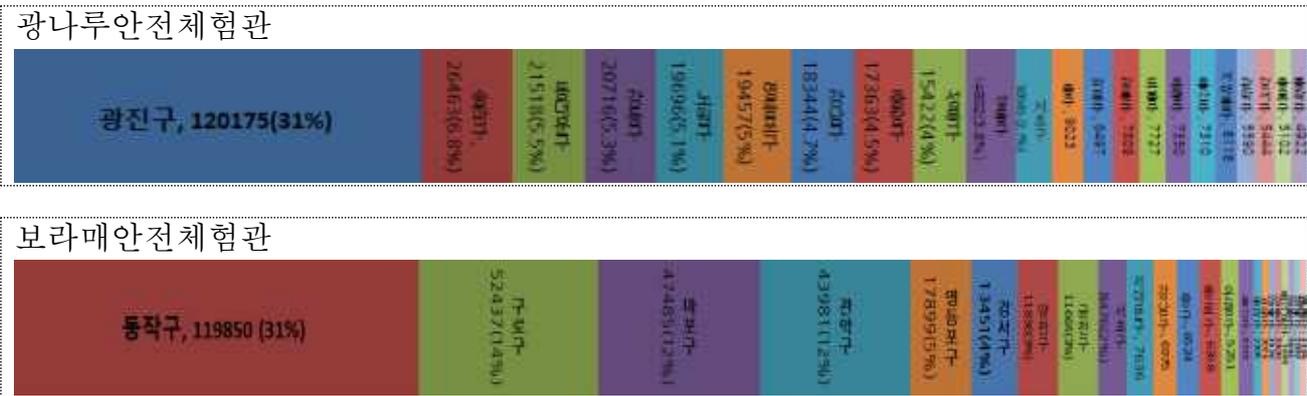
■ **시장에게 권역별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노력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 (안 제2조)**

- 안 제2조는, 시장에게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토록 하는 노력의무를 신설하면서 그에 따라 조례체계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2조)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설치 및 기능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(이하 "체험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<b>정하며,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<b>정한다.</b></p> <p>② <b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<b>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</b></p>
<p>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b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휴관일</b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b>시장</b>-----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- 최근 3년간 각 체험관별 자치구민 방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,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및 보라매안전체험관 각각 388,550명과 381,650명이 방문하였고, 그 중 가장 근접한 광진 주민과 동작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관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일수록 이용률 역시 높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음.



[그림] 체험관별 자치구민 방문통계 현황 (광나루: 388,550명 / 보라매: 381,650명)

- 따라서, 서울시가 추가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동부권 안전체험관과 서북권 안전체험관은 명목상으로나마 권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과 지향점을 같이한다 할 것이나,
- 이는 명목상의 권역 구분일 뿐, 진정한 권역별 운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어느 경계선까지를 실질적인 권역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음.
- 이를 위해,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안전체험관과 기존 보라매와 광나루 체험관 모두를 포함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편의성, 접근성, 예상 이용객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권역 범위

와 개수를 정하고,

- 이에 따른 권역별 인구변동 및 이용객 추이에 따라 일정 주기로 권역 경계를 탄력 조정함으로써 어느 한 권역에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안전체험관을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.